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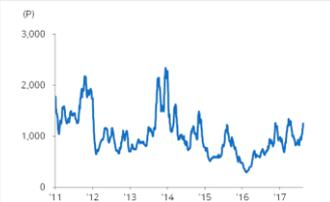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414.8	17.4	148,500	-4.8	-16.3	-11.1	7.3	53.5	120.9	0.8	0.8	1.3	0.6
현대로보틱스	7,320.8	19.0	449,500	2.4	6.8	23.3	NA	4.9	5.6	1.0	0.8	19.4	15.8
현대일렉트릭	1,129.7	7.6	304,500	0.7	-6.5	5.5	NA	14.9	10.1	1.4	1.2	9.5	13.1
현대건설기계	1,329.7	10.2	371,000	2.3	2.5	31.3	NA	11.6	8.9	1.5	1.3	13.1	15.8
삼성중공업	4,017.0	19.3	10,300	-0.5	-15.6	-10.4	11.4	52.3	111.4	0.6	0.6	1.2	0.6
대우조선해양	N/A	2.9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1,950.0	13.1	97,500	-0.8	-12.2	3.7	45.1	9.6	33.1	0.8	0.8	8.9	2.4
한진중공업	480.4	4.4	4,530	0.9	1.1	21.3	34.6	-14.1	10.2	0.5	0.5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271.0	28.7	51,600	-0.2	-11.9	-16.5	-10.1	9.6	9.1	1.4	1.3	15.9	14.6
두산인프라코어	3,614.0	24.5	36,050	-0.7	4.2	-2.2	0.6	15.8	14.5	1.0	0.9	6.6	6.7
현대로템	1,530.0	28.6	18,000	-0.3	-9.1	-16.9	-0.8	34.1	23.1	1.1	1.0	3.2	4.6
하이룩코리아	293.4	46.6	21,550	-2.0	-7.5	-10.4	2.1	11.3	9.9	0.9	0.9	8.5	9.0
성광벤드	271.4	13.6	9,490	1.0	-6.0	-9.2	7.1	30.7	17.7	0.6	0.6	1.9	3.2
태광	252.3	16.9	9,520	0.4	-2.5	1.4	14.8	35.6	19.6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916.3	10.5	18,000	-0.3	-14.3	-24.1	-33.8	18.5	9.9	0.6	0.6	3.9	6.2
두산인프라코어	1,661.7	12.9	8,010	-0.2	-2.0	-12.8	-9.2	9.6	7.7	0.8	0.8	8.5	10.2
두산엔진	269.7	5.2	3,880	-2.6	-3.6	-0.3	18.1	20.8	23.8	0.5	0.5	2.4	2.0
한국항공우주산업	4,094.0	19.8	42,000	-1.4	-16.7	-33.3	-37.3	23.5	15.7	2.7	2.4	11.5	16.1
한화테크윈	2,027.7	21.3	38,550	-5.6	-2.8	-22.0	-11.3	19.4	14.7	0.9	0.8	4.4	5.6
LG넥스원	1,665.4	20.6	75,700	-4.1	4.4	-5.3	-6.0	17.0	16.4	2.3	2.1	15.2	13.6
태웅	403.1	4.5	20,150	-1.5	-17.6	-27.6	-10.2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32.6	3.0	4,915	-6.7	-20.3	-27.6	-14.5	-22.9	9.8	1.2	1.1	-5.1	12.0
한국카본	263.8	16.6	6,000	-0.8	-1.3	-7.8	-0.8	23.5	22.3	0.8	0.8	3.5	3.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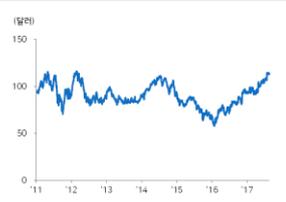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6 1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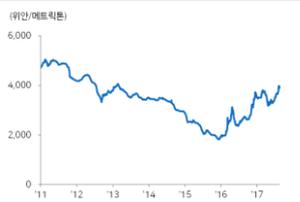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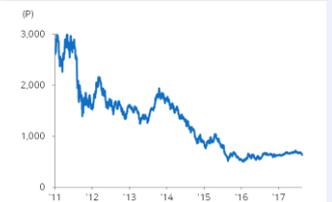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0.32 113.60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AP Moller sells Maersk Oil to Total for \$7.45bn

AP Moller-Maersk Group은 자회사 Maersk Oil을 오일메이저 Total에게 74.5억달러에 판매함. AP Moller은 작년부터 4개 사업부를 철수 후 컨테이너 해운과 물류에 집중하려 노력함. 이번 Maersk Oil의 판매는 사업 집중을 위한 첫걸음으로, 남은 자회사는 Maersk Tankers, Supply Service, Drilling임. (TradeWinds)

Statoil in 'fresh rig hunt'

노르웨이의 Statoil은 시추설비 일급이 낮아짐에 따라 3대의 시추설비를 구하는 중으로 알려짐. 또 앞으로 진행될 Johan Castberg, Snorre Expansion 등에서 추가적인 시추설비가 필요하지만, 올해 말 계약이 끝날 예정인 15대 Floating Rig 중 4대가 이미 계약돼, 계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Upstream)

Blackrock eyes \$880m investment in HMM

자산운용사 Blackrock은 현대상선에 8.8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Reuters에 따르면, 잠재적 투자는 논의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또 Blackrock은 현대중공업, Ardmore, Gener8, DHT Holdings, Tidewater, Clarksons을 포함한 조선·해운 전반에 관심을 가짐. (TradeWinds)

Total takes Maersk Oil in \$7.45bn deal

오일메이저 Total은 Maersk Oil을 74.5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함. 이번 인수를 통해 1) 북해 지역에서 두 번째 사업자로 입지 강화와, 2) 시너지 효과로 비용 절감을 예상함. 특히 Total이 가진 영국에 있는 자산과 Maersk Oil이 가진 북해 지역의 자산 결합으로 연간 약 4억달러 비용 절감을 기대함. (Upstream)

More Maersk deals 'in the works'

Maersk는 Maersk Oil의 판매를 시작으로, 보유한 나머지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 2018년 말까지 Maersk Energy의 자회사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에너지 분야를 벗어날 것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는 향후 Maersk Drilling이 M&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Upstream)

Ghana, EG presidents to sign LNG deal

가나 정부는 적도 기니에서 LNG를 수입하기로 합의함. LNG의 수입 목적은 연료 발전소로 연료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짐. 반면 적도 기니는 LNG의 일부를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 중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초 LNG 수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함. (Upstream)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8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8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